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다!”

2022 년 8 월 31 일 오늘 한국과 일본에서 생명과 평화, 안전한 삶을 염원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시민,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핵발전이 정말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일까요?”
극심한 가뭄과 폭우, 돌풍들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기후들을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순배출제로’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에 우리는 핵발전이 성장을 지속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심지어 핵부흥을 강조하는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위기를 이유로 돌연 핵발전 7 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소형원자로 등 새로운 핵활용기술 개발의지를 밝히고 있고 한국에서는 안전보다도 먼저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핵으로부터의 복원’을 강조하면서 먼저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등, 절차도 형식화하며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국민을 위하여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일까요?

그동안 알려지지 않거나 빨리 잊혀지게 해온 크고 작은 많은 핵발전 사고들, 그리고 더 큰 사고를 우려하게 하는 부실하고 취약한 핵발전시설들. 이상기후에 노출되면 더더욱 위험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상 기후, 해수 온도 상승 등의 변화된 조건 속에서 더 심각한 고장과 비상상황등을 더 자주 접하게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전쟁과 테러 위협에 대한 취약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사고로도 복원할 수 없는 심각한 대량피해를 일으키는 핵발전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돌아보아야 하는 때입니다. 10 만년 이상 안전하게 격리보관되어야 하는 핵폐기물들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장소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저장시설에 쌓아두고 있는 핵폐기물만도 약 2 만톤이고 현재 상태로도 매년 750 톤의 핵폐기물이 배출되며 원전 부지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곧 포화상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발전 현장을 방문하면 편리함과 안락함을 위해 사용되는 핵에너지 생산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지고 있음을 아프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안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안전한 주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는 8 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핵폐기물에 더 많은 핵발전 시설들이 얹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볼 때에 핵에너지는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오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자연과 인간이 모두 서로 하나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인데, “인간이 핵을 분열시켰다. 이제 핵이 인간을 분열시킨다”는 말처럼 핵에너지는 분열을 이용한 에너지이면서 사람들을 분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와

고통은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더 얹어집니다.

생명을 선택해야 하지만,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과 눈물을 바탕으로 편안을 누리기 보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함께 나아가도록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장과 불의에 싸우며 분열하고 피폐해지지 않고 평화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 성령님, 성령의 이름으로 결합된 저희가 주님의 자비와 정의를 따라 판단함으로써 오늘도 저희의 행동이 주님 뜻에 맞게 하소서.”(성 이시도로)

한일 탈핵평화 순례는 이런 뜻을 이어가며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진정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 주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지하라.
- 고준위핵폐기물 담은 없다. 핵발전을 중단하라
-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
- 국회는 주민들의 거주권, 생명권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라
- 한일 양국 시민의 연대로 핵발전 멈추고, 핵무기도 폐기하자.

2022년 8월 31일(수)

한일천주교탈핵평화순례단 (그 외 단체 연명)